

구약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법

- '하나님 닮아가기'(imitatio Dei)로서의 안식일 준수-¹⁾

하경택*

들어가는 말

생산성과 능률만을 강조하고 노동의 대가를 소비를 통해 보상하려고 하는 경향은 현대산업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멀러(W. Muller)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대인들이 “쉼 새 없이 바쁜 현대생활에서 일과 휴식 사이의 리듬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한다.²⁾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된 현대인들은 성과와 성취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식’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 쉽다. 한병철은 이러한 현대사회를 ‘성과사회’라고 진단한 바 있다.³⁾ 지금의 한국사회는 그 어느 곳보다 ‘성과사회’의 부정적 결과인 ‘피로’와 ‘탈진’의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현대사를 돌아켜본다면 그러한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 논문은 2020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2) W. Muller, 『휴(休)』, 박윤정 옮김 (서울: 도솔, 2002), 9.

3) 현대사회를 과거의 ‘규율사회’와는 다른 ‘성과사회’라고 규정하고, 현대인들이 외적인 강요가 아닌 자기 착취를 통해 착취자인 동시에 피착취자가 되어 우울증과 소진증후군 등의 신경성 질환들을 앓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25-29.

4) ‘성과사회’는 다른 이름은 ‘우울사회’인데, 성과사회는 긍정성의 과잉을 통해 자기 착취의 사회로 나아가며,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자학성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살로까지 치닫게 한다고 설명한다(한병철, 『피로사회』, 103).

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상황도 달라졌다. 한국사회의 위상도 높아졌고, 삶에 대한 국민의식도 달라졌다. 이제야말로 ‘안식’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때이다.⁵⁾

구약성경에서 ‘안식’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식일 법을 살피는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법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안식일 법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것의 현대적 적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⁶⁾

1. 안식일의 기원

19세기 말부터 구약성경 외에서 안식일의 기원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⁷⁾ 이것은 고대 바벨론 문서들의 발굴과 함께 오경의 본문들이 문헌 비평에 따라 연대설정이 재정립되면서 활기를 띠었다.⁸⁾ 안식일의 기원에

5) 안식의 부재 사회에 대한 진단과 그 해결책 모색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문상기, “주5일 근무제와 쉼과 안식의 신학,” 『복음과 실천』 34 (2004), 205-229; 최성수, “한병철의 피로사회 이론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고찰과 대응방안 모색으로서 안식일 개념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5 (2013), 195-222; 김은배, 백근철, “윌터 브루그만의 저항적 안식일론에 관한 고찰과 평가,” 『신학논단』 88 (2017), 33-54; Marva J. Dawn, 『안식』, 전의우 옮김 (서울: IVP, 2001); D. C. Bass, *Receiving the Day. Christian Practices for Opening the Gift of Time* (San Francisco: Jossey-Bass A Wiley Imprint, 2000).

6) 필자는 이 논문에서 우선적으로 안식일 기원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소개하되, 안식일 법의 구약신학적 의미를 찾는다는 점에서 본문상호간의 비교연구를 통한 공시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7) 다양한 시도들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G. F. Hasel, “Sabbath,” *ABD* 5, 850-851; 박희석, 『안식일과 주일: 성경신학적 이해와 그 적용』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21-30; F. Hartenstein, “Der Sabbat als Zeichen und heilige Zeit. Zur Theologie des Ruhetages im Alten Testament,” M. Ebner (Hrsg.), *Das Fest: Jenseits des Alltags* (JbTh 18;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103-107; 이궁재, “고대 이스라엘 역사 흐름 속 ‘안식일’(=Sabbath) 개념 변화에 대한 신학적 고찰: ‘Sabbath’ - 망월, 축제일, 휴일 그리고 안식일,” 『구약논단』 24 (2018), 295-304.

대한 설명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매월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휴식하던 바벨론의 만월일이다. 이 날은 아카드어로 <샤뻬/파투>(<*šab/pattu*[*m*])라 불리어 <샤뻬트>(<*sabbath*>)와의 어원적인 유사성도 지적되었다. 하지만 히브리어 <샤뻬트>(<*sabbath*>)는 중간자음이 겹치고 있는 반면, 아카드어 <샤뻬/파투>(<*šab/pattu*[*m*])는 끝자음이 겹친다는 점에서 그 관련성이 부정된다. 무엇보다 이 날은 매월 지키는 축제일로서 7일 주기의 안식일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음으로 안식일이 아시리아 달력에서 <우메 렘누티>(<*ûmé lemniúti*>)라 불리던 금기일(taboo day)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아시리아 달력에 따르면 <우메 렘누티>에 해당되는 1일, 7일, 14일, 19일, 21일, 28일은 운수 나쁜 날로 지정되어 노동하지 않고 쉬는 날로 지켰다고 한다. 하지만 이 날들 가운데 19일이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겨졌는데, 이것은 대략적으로만 일치할 뿐 근본적으로 7일 단위의 주기와 맞지 않는다. 또한 금기일의 의미는 안식일의 근본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용되기 어렵다. 이외에도 겐 족속의 토성 숭배일(Saturn-day)에서 영향을 받았다거나 고대 가나안의 장날(market day)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설명들이 있었다. 그러나 날에 태양계의 별들의 이름을 붙인 것이 1세기 무렵이고, 안식일이 장사를 금한 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⁹⁾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면, 구약성서 외적 자료에서 안식일의 기원을 찾는 시도들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¹⁰⁾ 그러한 설명들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며, 오히려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제도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¹¹⁾ 안식일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7일 주기의 안식일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원했는가의 문제이다.¹²⁾ 고대 중동의 풍속에

8) G. F. Hasel, "Sabbath," *ABD* 5, 850.

9) 김근주, "안식, 그 거룩한 부르심,"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서울: 대장간, 2015), 13.

10) G. F. Hasel, "Sabbath," *ABD* 5, 851.

11) B. A. Levine, *Levitic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New York/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261; A. Schuele, "Sabbath," *NIDB* 5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9), 3.

12) 7일 주기의 안식일은 포로기 예언자인 에스겔과 그의 추종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공동체인

서는 7일 주기의 안식일이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¹³⁾ 7일 주기의 안식일 기원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구약성경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안식일의 기원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약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본문들의 증거를 따라 드러나는 안식일 법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안식일 법의 의미

2.1. 노동으로부터 휴식: 숨 돌리기

출 34:21

“너는 옛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נָשָׁבַת).¹⁴⁾

발갈이할 때나 추수할 때도 너는 쉬어야 한다(נָשָׁבַת).”

자신들을 주변세계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낸 제도라고 설명하기도 하고(J. Meinhold),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W. Thiel; F.-L. Hossfeld). 하지만 포로기 이전에 존재했던 제도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예컨대, G. F. Hasel), 그 기원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G. F. Hasel, “Sabbath,” *ABD* 5, 852; A. Schuele, “Sabbath,” 4; 이궁재, “고대 이스라엘 역사 흐름 속 ‘안식일’(=Sabbath) 개념 변화에 대한 신학적 고찰: ‘Sabbath’ - 망월, 축제일, 휴일 그리고 안식일,” 308.

- 13) 고대 중동의 7일 단위의 리듬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R. North, “The Derivation of Sabbath,” *Biblica* 36 (1955), 201 (Marva J. Dawn, 『안식』, 전의우 옮김 [서울: IVP, 2001], 165쪽에서 재인용); 강사문, “구약에 나타난 칠일단위의 문화구조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5 (1989), 9-19. 그러나 할로(Hallo)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의 달력은 7일 단위의 주간과는 관계없이 달의 움직임에 따라 규정되는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제의 달력이 달의 움직임과 거의 관련성이 없고 7일 주기의 안식일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는 이스라엘과 고대 중동의 절기 특징을 “안식일 주기 대(對) 월력”(sabbatical cycles versus lunar calendars), “신적 권위 대(對) 왕적 권위”(divine versus royal authority)라는 말로 요약한다. W. W. Hallo, “New Moons and Sabbaths: A Case-study in the Contrastive Approach,” *Hebrew Union College Annual* 48 (1977), 17.

- 14) <사바트> (שַׁבָּת) 동사는 ‘멈추다’(cease)의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노동과 관련된 진술의 맥락을 고려하여 ‘쉬다’(rest)로 번역한다.

위의 명령은 소위 '야훼의 특권법' 혹은 '제의 십계명'이라 불리는 본문(출 34:11-26)에 들어있다.¹⁵⁾ 여기에서 명사로서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지만, <샤브트> (שַׁבָּת) 동사를 통해서 7일 주기의 '쉬'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¹⁶⁾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밭갈이'와 '추수'의 때에 관한 언급이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일년중 가장 바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7일 주기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것은 땅의 주인이자 모든 수확물의 수여자이신 야훼를 존중하라는 의미이면서¹⁷⁾ 동시에 농번기에 농부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쉬를 제공하기 위한 명령으로 이해된다.¹⁸⁾

- 15) 독일어권에서는 이것을 “야훼의 특권법”(Privilegrecht)이라고 말한다. 괴테(Johann W. von Goethe)는 이것이 윤리 십계명과 대조된다는 의미에서 제의 십계명(Kultischer Dekalog)이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제의의 관점으로 고찰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출 23:14-19의 내용과 유사하며, 후대에 34:10과 34:27 사이에 삽입된 제의 규정들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적인 십계명과는 구분되며, 십계명보다 이른 시기에 생성된 규정들로 평가된다(J. Halbe, *Das Privilegrecht Jahwes: Ex 34, 10-26: Gestalt und Wesen, Herkunft und Wirken in vordeuteronomischer Zei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254쪽 이하; 이와는 달리 후대의 신명기사가적 최종편집의 결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참조, H.-Chr. Schmitt, “Das sogenannte jahwistische Privilegrecht in Ex 34,10-28 als Komposition der spätdeuteronomistischen Endredaktion des Pentateuch,” J. Chr. Gertz u.a.,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2], 157-171). 십계명의 생성시기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Y. Hoffman, “The Status of the Decalogue in the Hebrew Bible,” H. G. Reventlow & Y. Hoffman, *The Decalogue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New York/London: T&T Clark, 2011), 34-35.
- 16) 출 34:21 전반절은 출 23:12 전반절과 함께 가장 짧은 형태의 안식일 규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규정이 출발점이 되어 이후에 고찰하게 되는 다양한 본문의 안식일 법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역사-비평적 연구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J. Halbe, *Das Privilegrecht Jahwes Ex 34, 10-26: Gestalt und Wesen, Herkunft und Wirken in vordeuteronomischer Zei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186-187.
- 17) ‘양식의 공급자’에 대한 신뢰로서 안식일 준수의 의미는 필자의 줄고를 참조하라. 하경택, “하늘의 양식, 만나의 기적: 출 16:1-26에 대한 주석적 연구,” 『서울장신논단』 17 (2009), 7-43.
- 18) A. Schuele, “Sabbath,” *NIDB* 5, 4. 이와는 달리 이 본문은 7일 주기의 안식일이 처음에는 밭갈이 때와 추수 때에만 지켜지다가 나중에 십계명을 통해 연중 절기로 확대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E. Otto, “Feste und Feiertage II,” *TRE* 11, 103).

출 23:12

“너는 옛새 동안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מבֹשֶׁת). 그래야 네 소와 네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מנוח), 네 여종의 아들과 거류민(גֵר)이 숨을 돌릴 것이다(שָׁנָא).”

출애굽기 23장 12절은 이른바 ‘언약법전’에 속하는 본문이다.¹⁹⁾ 이 구절의 전반절은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출애굽기 34장 21절의 전반절과 내용면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후반절의 내용에서는 차이가 크다. 출애굽기 34장 21절 후반절은 쉼의 시기가 문제가 되지만, 23장 12절의 후반절에서는 안식의 대상이 명확하게 언급된다. 소와 나귀가 안식해야 하고, 여종의 아들과 거류민이 쉬어야 한다. 이것은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에서 등장하는 대상들과 일치한다. 동물과 사람으로 나타나는 두 종류의 대상은 동물 가운데 자유롭게 쉴 수 없는 가축과 사람들 중에 쉼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종들과 거류민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흥미롭다. 소와 나귀의 쉼을 위해서는 <누아흐> (נָח) 동사가 사용되었고, 여종의 아들과 거류민을 위해서는 <나파쉬> (נָפַשׁ) 동사의 니팔형이 사용되었다. 전자는 ‘안식하다’로, 후자는 ‘숨을 돌리다’로 번역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동사는 옛새 동안 숨 쉴 틈도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마침내 ‘숨 돌릴 틈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나파쉬> (נָפַשׁ) 동사의 니팔형이 안식일 법이 나타나는 출애굽기 31장 1-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금 등장한다.

출 31:17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을 위한 표징이다. 왜냐하면 옛새 동안 야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מבֹשֶׁת) 숨을 돌리셨기(שָׁנָא) 때문이다.”

19) 언약법전의 기원과 구성에 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F. Crüsemann,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Chr. Kaiser, 1992), 132-234.

출애굽기 31장 17절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어구로 시작하는 7개의 성막지시 연설 가운데 하나이다(출 25:1; 30:11, 17, 23, 34; 31:1, 12).²⁰⁾ 이 가운데 일곱 번째 연설(31:12-17)은 다른 연설과 달리 안식일 준수에 관한 말씀이다.²¹⁾ 여기에서 야훼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면서(13절, 14절, 16절), 그것의 동기와 근거로서 창조 때 일곱째 날에 쉬셨던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고 있다. 이때 하나님의 안식을 표현하기 위해 <샤바트> (שַׁבָּת) 동사와 <나파쉬> (נַפְשִׁי) 동사 두 가지가 사용된다. 두 번째 동사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사용된 동사로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노동자들이 힘든 노동으로부터 한 숨 돌리는 행동을 표현한다.²²⁾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다.²³⁾ 하나님의 안식을 피조물인 인간의 행동에 빗대어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안식일 법의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즉,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도 ‘숨 돌리셔야’ 할 만큼 절실한 것이며,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언급은 안식일 법을 하나님의 창조행위와 연결 지어 생각하도록 만든다.

-
- 20) J. Blenkinsopp, “The Structure of P,” *CBQ* 38 (1976), 275-292; P. J. Kearney, “Creation and Liturgy: The P Redaction of Ex 25-40,” *ZAW* 89 (1977), 375-387. 이 일곱 개의 연설은 창세기 1-2장의 창조의 7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J. D. Levenson, *Sinai and Zion: An Entry into the Jewish Bible* [New York: Winston, 1985], 111-137). 이것은 성막건축이 창조사건과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 21) W. Brueggemann, “Sabbath as Alternative,” *Word & World* 36:3 (2016), 249.
- 22) 구약성경에서 세 번(출 23:12; 31:17; 삼하 16:14) 밖에 쓰이지 않은 이 동사가 두 번 안식일 계명과 관련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안식일과 이 동사의 의미를 연결지어 생각하도록 한다.
- 23) N. M. Sarna,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New York/Jerusalem, 1991), 202. 칠십인경에서는 출애굽기 23:12에서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를 살린 <아나프쉬코> (אַנַפְשִׁיכֶם)로 번역한 것과는 달리 이 부분을 ‘일을 중단하다’의 의미를 가진 <카테파우오> (καταπαύω) 동사(히브리어 <샤바트> [שַׁבָּת]에 상응함)를 사용하여 번역한다. 칠십인경 번역자들이 꺾끄러워할 만큼 이 표현은 파격적이다. 김근주, “안식, 그 거룩한 부르심,” 23.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일의 연결은 다음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나는 창조보도에서 일곱째 날에 대한 서술(창 2:1-3)이요,²⁴⁾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에 대한 설명이다(출 20:8-11). 전자는 창조의 완성으로서 일곱째 날의 안식을 말하고, 후자는 쉬을 누려야 할 다양한 대상들(“나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이 함께 쉬을 누리는 안식을 말하고 있다. 이 두 본문 모두 핵심은 ‘노동의 중단’이며, ‘일로부터 쉬’이다.²⁵⁾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출애굽기 34장 21절, 23장 12절, 31장 17절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주제이다.

안식일은 아무리 바쁜 농번기에도 쉬어야 할 날로 명령된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숨 돌릴 틈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 계명의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행동에 기초하고 있다. 안식일의 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신적 기원을 가진 엄중한 명령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쉬는 숨 가쁘게 돌아가는 노동의 삶을 멈추고, ‘숨 돌릴’ 시간을 가져서, 새로운 일상을 살도록 설계되고 명령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이다.

2.2. 출애굽 구원사건의 기억과 실행: 해방과 자유

구약성경에서 ‘십계명’²⁶⁾은 두 곳에서 등장한다.²⁷⁾ 출애굽기 20장 1-17

24) 창 2:3에서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בִּרְכוּתוֹ)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קָדְשׁוֹ)고 말한다. 여기에서 ‘복 주시다’는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로, ‘거룩하게 하시다’는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겠다’로 이해할 수 있다(R. T. Beckwith, *Calendar and Chronology, Jewish and Christian: Biblical, Intertestamental and Patristic Studies* [Leiden/New York/Köln: E. J. Brill, 1996], 10-11).

25) E. Otto, “Feste und Feiertage II,” 104. 포로기 이후 안식일 계명은 더욱 철저한 노동금지 규정으로 발전한다(느 10:32; 13:15-22; 마카베오상 2:32-38). 그리고 예세네파에서는 일상생활의 기본 용무까지 포기하는 철저한 안식일 준수가 수행되었다(회년서 50:8-12; CD X,14-XI, 18; Jesephus, Bell II, 147).

26) ‘십계명’이라는 명칭은 ‘열 가지 말씀’이라는 의미의 <아세렛 핫테바림> (עֲשֵׂרֵת הַדְּבָרִים)

절과 신명기 5장 6-21절이다. 두 가지 판본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다.

출 20:8-11

-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זָכוֹר)²⁸⁾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 9절 옛새 동안²⁹⁾ 네가 일할 수 있고(עָבַדְתָּ) 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וְעָשִׂיתָ כָּל-מְלֶאכֶתְךָ).
- 10절 그러나 일곱째 날은 야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שִׁבְתָּ לַיהוָה לְזֵכָרָהּ). (그 날에)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가축과 네 문 안에 있는 네 거류민은 어떤 일³⁰⁾도 하지 말라(לֹא-תַעֲשֶׂה כָּל-מְלֶאכֶתְךָ).
- 11절 왜냐하면 옛새 동안 야훼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וַעֲשָׂה) 일곱째 날에 쉬셨기(וַיָּנוּחַ)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וַיְבָרֵךְ)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וַיְקַדְּשֵׁהוּ).

에 기원한다. 구약성경에 세 번(신 4:13; 10:4; 출 34:28) 등장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의 경우 “제의적 십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출 34:10-26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일차적으로 ‘고전적이며 윤리적인’ 십계명을 담고 있는 신 5:6-21(=출 20:2-17)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L. Peritt, “Dekalog,” *TRE* 8, 408-409.

- 27) 십계명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설명이 있다. 미틴 루터(M. Luther)는 1530년의 “십계명에 대한 주해서” 서언에서 십계명이 “모든 약속 중의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다.”고 말했다(WA 30:2, 358), 슈멘트(R. Smend)는 “십계명은 모든 것에 관한 것이다.”는 문장으로 십계명을 평가하며(R. Smend/U. Luz, *Gesetz*, 16), 그라우스프너(A. Grauspner)는 “하나님의 의지의 총합이다.”라고 말한다(A. Grauspner, “Die zehn Gebote im Rahmen alttestamentlicher Ethik,” 94). 마르클(D. Markl)은 하나님 백성의 “헌법”(Verfassung)으로서 출애굽기 19-24장 본문에서는 19:3-6과 함께 중심부를 형성하고, 신명기에서는 5-26장의 거대한 중심부를 시작한다고 말한다(D. Markl, *Der Dekalog als Verfassung des Gottesvolkes. Die Brennpunkte einer Rechtshermeneutik des Pentateuch in Exodus 19-24 und Deuteronomium 5* [Freiburg u. a.: Herder, 2007], 255).
- 28) 부정사 절대형은 강조 명령의 대용으로 사용되며(G-K § 113bb), 대격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다(G-K § 113f). 부정사 절대형을 지시적 미래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J-M § 123v). “너는 안식일을 기억할 것이다.”
- 29) 시간의 (한정적) 대격(G-K § 118k; J-M § 126i). 장소, 시간, 수단, 원인, 양태 등을 나타내기 위해 대격이 사용될 수 있다.
- 30) <로>는 <콜>과 결합하여 절대부정을 나타낸다. (G-K § 152b)

신 5:12-15

12절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대로 안식일을 지키어 (אָנַחְתָּ)³¹⁾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13절 옛새 동안 네가 일할 수 있고 너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14절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위한 안식일이다. (그 날에)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소와 네 나귀와 네 가축과 네 문 안에 있는 네 거류민은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로써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할 것이다(אָנַחְתָּ).

15절 그리고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였으며 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곳에서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תִּזְכָּר). 그러므로 네 하나님 야훼께서 안식일을 행하라(אָנַחְתָּ) 고 명령하셨다.

위의 본문비교에서 *이탤릭체* 부분은 바뀐 부분이고, **굵은 글씨** 부분은 출애굽기 본문에는 없던 것이 신명기 본문에는 추가되어 나타나는 부분이다. 변경된 부분과 추가된 부분을 고려하여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일 계명의 의미를 살피면,³²⁾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고찰될 수 있다.

31) 출애굽기 20장 8절의 ‘기억하여’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라.

32) 신명기의 십계명 판본에서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의 십계명에서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명기 십계명 판본에서 안식일 계명의 의미를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가 로퓌크(Lohfink)이다. 그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로 시작되는 나머지 다섯 가지 계명 앞에 각각 “그리고”(ו)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 다섯 계명을 한 블록으로 묶는다. 이러한 분석은 십계명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블록으로 구분하는 결과를 갖게 한다: 야훼숭배(신 5:6-10), 야훼의 이름(11절), 안식일 준수(12-15절), 부모공경(16절), 도덕적인 계명들(17-21절).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안식일 계명은 한 중심을 형성한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로퓌크는 안식일 계명을 십계명의 “중심계명”(Hauptgebot)이라고 명명하기까지 한다(N. Lohfink, “Zur Dekalogfassung von Dt 5,” *Biblische Zeitschrift* 9 [1965.1], 25-26). 하지만 안식일 계명의 중심성은 내용 면에서도 고찰될 수 있다. 밀러(P. D. Miller)에 따르면 안식일 계명은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앞쪽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끝없는 생산의 갈망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안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뒤쪽으로는 인간과 관련하여 인간관계들이 갈망하고 공격적이고 자기보호적인 행동과 방침에 의해서 내몰리지 않는 휴식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참조, P. D. Miller, Jr, *The Ten Commandments*

첫째, 안식일 명령에 대한 의미이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기억하라'에서 '지키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두 동사가 표현하는 의미의 차이를 부각시킬 수도 있지만, 두 동사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³³⁾ 두 동사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기억'은 '지킴'을 목적으로 하고, 반대로 '지킴'은 '기억'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며, 안식일을 '지킴'으로서 안식일에 대한 '기억'을 완성하는 것이다.

둘째, 신명기 십계명 본문에 추가된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특징은 안식일 대상을 더욱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대로'라는 어구는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전제하는 것이다.³⁴⁾ 이미 주어진 말씀을 반복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후에 나타나는 추가 부분이다. 안식일 준수의 대상을 열거하면서 '네 소와 나귀'가 추가된다. 이뿐 아니라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로써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할 것이다(אִתְּךָ)."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다. 이것은 안식일 준수의 대상으로 열거된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가축과 네 문 안에 있는 네 거류민'에서 가축을 세분화하여 '소와 나귀'를 명시하고 있으며(열 번째 계명으로 분류되는 21절에서도), 이미 앞에서 언급된 '남종과 여종'을 따로 언급하며 '너처럼 안식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의 십계명이 출애굽기 본문에 비해 사회구성원들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특별히 안식일의 안식이 필요한 대상을 반복하여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9), 117-166.

33) 유대관습에 따르면 금요일 일몰 때 안식일을 맞이하는 키드쉬(Kiddush) 의식에서 '기억하다'와 '지키다'는 계명을 의미하는 두 개의 촛불을 켜다. Marva J. Dawn, 『안식』, 26-27, 특히 각주 5번. 또한 '기억하라'와 '지키라'의 두 명령을 한 번에 말하라는 유대교 해석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E. Z. Melammed, "'Observe' and 'Remember' Spoken in One Utterance," B.-Z. Segel, *The Ten Commandments in History & Tradition* (Jerusalem: Magnes, 1990), 191-217.

34) 이 어구는 신 5:16의 '부모공경' 계명에서 한 번 더 나타난다.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³⁵⁾

셋째, 안식일 계명의 동기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출애굽 사건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안식일 계명에 관한 본문뿐만 아니라 십계명 전체에서도 가장 큰 변화이다. 신명기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 계명의 동기를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라고 밝힘으로서 안식일 계명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이러한 안식일 계명의 동기는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בֵּית עֲבָדַי)”³⁶⁾에서 너를 이끌어 낸³⁷⁾ 야훼,³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밝히는 십계명 서언(신 5:6; 또한 출 20:2)과의 연결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안식일 계명에 서언에서처럼 억압된 종살이의 ‘일’로부터의 해방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³⁹⁾ 출애굽 사건은 종살이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대상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사건이 임하도록 배려해야 한다.⁴⁰⁾ 그러한 배려가 안식일 계명인 것이다. 브루그만은 이러한 의미의 안식일을 “다른 날에는 매우 불평등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평등화시키는 날”이라고 규정한다.⁴¹⁾ 이것을 수혜자의 입장에서 말하면, 노예로

35) 이러한 추가는 출애굽기 23:12의 영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M. Weinfeld, *Deuteronomy* [AB], 308; J. H. Tigay, *Deuteronomy* [JPS], 69). 하지만 이것은 다른 본문들(신 10:18-19; 14:29; 16:9-15; 23:17-22; 26:12, 13; 27:19)과 함께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신명기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M. E. Biddle, *Deuteronomy* [Smyth & Helwys], 111).

36) ‘종의 집’으로서의 이집트에 관한 언급에서 총 13회 등장: 출 13:3, 14; 20:2; 신 5:6; 6:12; 7:8; 8:14; 13:6[5], 11[10]; 수 24:17; 사 6:8; 렘 34:13; 미 6:4. 또한 ‘외 풀무’로서의 이집트에 관한 언급을 참조하라(신 4:20; 왕상 8:51; 사 48:10; 렘 11:4).

37) <호제티하> (הוֹצֵאתִיךָ) 3회 등장. 창 15:7; 출 20:2; 신 5:6

38) <아노키 야훼> (אֲנֹכִי יְהוָה) 12회 등장(출 4:11; 20:2, 5; 신 5:6, 9; 시 81:11; 사 43:11; 44:24 + יהוה אֲנֹכִי 사 51:15; 호 12:10; 13:4)

39) R. Rendtorff, 『구약정경신학』, 하경택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158. ‘종(<에베드>, עֶבֶד)이라는 낱말과 ‘일하다’(<아바드>, עָבַד) 동사는 같은 어근에서 비롯되었다.

40)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시하는 신명기의 규정들에서 많은 경우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라는 명령이 그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예컨대, 신 15:15; 16:12; 24:18, 22).

부터의 해방이요 노예노동에 대한 실천된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안식일 준수는 자유자나 수혜자 모두에게 “야훼로부터 주어진 자유의 신분에 대한 모범적인 인식과 실천”⁴²⁾을 의미한다.

신명기의 십계명을 통해 더욱 강조되는 안식일 계명의 의미는 ‘해방과 자유’이다. 단순한 휴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차원의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구원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그리고 특별히 남종과 여종이 ‘너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은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구원의 날’이다.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원이 필요한 대상과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베푸는 ‘해방과 자유’의 안식일이 되어야 함을 일깨운다.⁴³⁾

2.3. 절기와 안식년/희년 법의 기본원리로서 안식일: 회복과 새로운 시작

안식일 법은 다양한 절기와 법들의 기초가 된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에서

-
- 41) W. Brueggemann, “Sabbath as Alternative,” *Word & World* 36:3 (2016), 251. 이 외에도 브루그만은 안식일의 의미를 다양하게 규정한다. 안식일은 고갈과 축소 경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이며, 다른 인간성에 소속됨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안식일은 “대안적인 존재방식에 대한 삶의 선택”(life choice for an alternative existence)이라는 것이다(W. Brueggemann, “Sabbath as Alternative,” 249-250). 브루그만의 안식일 이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김은배, 백근철, “월터 브루그만의 저항적 안식일론에 관한 고찰과 평가,” 『신학논단』 88 (2017), 33-54.
- 42) F. Crüsemann, 『자유의 보존 -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십계명 이해』, 이지영 옮김 (양평: 크리스천헤럴드, 1999), 72.
- 43) 오토(E. Otto)는 신명기의 안식일 법이 출애굽의 구원경험을 강조하는 신명기 법(신 15:15; 16:12; 24:18, 22)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들의 실행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할에 비교될 수 있으며,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균등화를 지향하는 레위기 25장의 성결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 Otto, *Deuteronomium* 4,44-11,32 (HThKAT) (Freiburg u.a.: Verlag Herder, 2012), 739-741.

는 다양한 축제절기가 안식일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축제 달력의 안식일화”(Sabbatisierung des Festkalenders)라고 불릴만하다.⁴⁴⁾ 레위기 23장에서 여러 가지 ‘야훼의 절기들’이 소개된다. 이 가운데 안식일 규정은 맨 앞에 있으면서 축제달력의 기본원리로서 머리말 역할을 한다.

레 23:1-3

- 1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것들은 너희가 거룩한 총회로 불러야 할 야훼의 절기들(מוֹעֲדֵי יְהוָה)이다. 그것들은 나의 절기들이다.
- 3절 옛새 동안 일이 행해질 수 있으나(תַּעֲשֶׂה), 일곱째 날에는 완전한 안식일(שַׁבָּת שְׁבֻתָּה)로서 거룩한 총회가 있어야 하며,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לֹא תַעֲשֶׂה). 그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지켜야 할) 야훼를 위한 안식일(שַׁבָּת לַיהוָה)이다.”

안식일 규정이 레위기 23장에 소개된 여러 야훼 절기들(레 23:2, 4, 37, 39, 44)의 기본원리가 된다는 점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 확인된다.⁴⁵⁾ 우선 여기에 소개된 절기의 수가 일곱이다. 안식일(3절)에 이어 유월절/무교절(4-8절), 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9-14절), 칠칠절(13-22절), 나팔절(23-25절), 속죄일(26-32절), 초막절(33-43절)에 대한 규정이 연이어 나타난다. 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에 대한 소개는 제의 달력에 해당하는 다른 본문(예컨대, 신명기 16장이나 민수기 28-29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배열은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상징하는 숫자 ‘7’을 떠올리게 한다. 이뿐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여러 절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무교절이나 초막절은 칠일 동안 지켜지고(8절, 42절),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워 칠칠절을 지키며(15절), 일곱째 달에 세 가지 절기(나팔절, 속죄

44) C. Körtung und H. Spieckermann, “Sabbat I,” *TRE* 29, 520.
 45) 김근주, “안식, 그 거룩한 부르심,” 24-25; C. Körtung und H. Spieckermann, “Sabbat I,” *TRE* 29, 520; E. Otto, “Feste und Feiertage II,” *TRE* 11, 104.

일, 초막절)가 모여 있다. 또한 안식일 규정의 핵심내용인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를 제외한 모든 절기 규정에서 등장한다(23:3, 7-8, 21, 25, 28-31, 35-36). 여러 절기들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설정되고(11절, 15-16절), 특정한 날들이 안식일을 의미하는 <샤바톤>으로 묘사된다(24, 32, 39절).⁴⁶⁾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라는 표현이 절기에 대한 규정에서 여러 번 등장한다는 사실이다(23:3, 14, 21, 31). 안식일을 비롯한 여러 절기들이 어느 특별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절기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여기에 소개된 다양한 절기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지킬 수 있는 시간의 절기임을 보여준다.⁴⁷⁾

이처럼 안식일 법은 레위기 23장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절기의 기본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다.⁴⁸⁾ 절기의 기본원리로서의 안식일의 의미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있다. 안식일은 쉼을 통해 육체노동으로 소진된 힘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이뿐 아니라 ‘야훼를 위한/야훼께 속한 안식일(יְהוָה לְפָנָיו)’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안식일은 야훼를 위한 또는 야훼께 속한 날이다. 이것은 안식일이 야훼와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러한 절기의 기본원리로서의 안식일의 의미가 유월절/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의 3대 절기뿐 아니라 속죄일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절기들은 역사 속에서 경험한 야훼의 구원사건을 농경절기를 통해서 재현하며, ‘스스로를

46) 32절에서는 레 16:31에서와 마찬가지로 속죄일이 안식일을 지칭하는 <샤바트 샤바톤>(שַׁבָּת שַׁבְּוֹתוֹ)으로 언급된다. <샤바트 샤바톤>(שַׁבָּת שַׁבְּוֹתוֹ)이라는 표현은 안식년에 대한 표현으로도 등장한다(레 25:4).

47) 특별히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계명에서보다 시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어떤 종교들은 거대한 성당이나 사원을 짓는다. 그러나 유대교는 시간의 건축물로서 안식일(샤바트)을 지었다”(A. J. Heschel, 『안식』, 김순현 옮김 [서울: 복있는 사람, 2007], 34). 더 나아가 헤셀은 자신의 책(『안식』)에서 유대교와 안식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유대교는 **시간의 성화를** 목표를 삼는 **시간의 종교**다”(49쪽). “안식일이야말로 우리가 세운 성소, 곧 **시간 속의 성소**”이다(82쪽).

48) 안식일 법은 이른바 ‘성결법전’의 다른 곳에서도 중요하게 고찰된다(레 19:3, 30; 24:8; 26:2, 34이하, 43).

괴롭게 하는' 속죄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회복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째 달 첫날인 나팔절의 안식을 통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다.

이러한 절기의 기본원리로서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년 법이나 희년 법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안식년 법이 나타나는 본문들을 살펴보자.⁴⁹⁾

출 23:10-11

10절 너는 육년 동안 네 땅에 씨를 뿌리고 그것의 소출을 거두라.

11절 그리고 제 칠년에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묵혀서 너와 함께 있는 궁핍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것들 가운데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너는 너의 포도원과 올리브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에서 <사나트 사바톤> (שַׁבָּתוֹן שָׁנָה)라는 '안식년'을 위한 전문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제 칠년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안식년을 위한 법임을 알 수 있다. 이 안식년 법은 휴경을 통해서 땅을 쉬게 하고, 그때 나오는 소출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양식이 되게 하고 있다. 땅에 대한 안식과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나타난다.⁵⁰⁾

출애굽기 21장 2-11절에서도 '안식년'이란 용어는 없지만, 일곱째 해의 노예해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안식년 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식년 법의 내용은 신명기 15장에서도 발견된다. 신명기 15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49) 출 23:10-11과 신 15:1-18, 레 25:1-7의 세 본문은 동일한 용어를 통해 지칭되는 것도 아니고('안식년' 레 25:5; '면제년' 신 15:9), 휴경과 채무 면제와 노예해방으로 다루어지는 내용도 달라 다른 정신과 기원을 가진 규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본문이 '일곱째 해'라는 표현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의 '안식'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 본문들을 '안식년 법'이라고 부른다. 안식년 법 본문들의 형성과 상호관계성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김선종, "면제년의 땅(신 15:1-11)," 『장신논단』 44:1 (2012), 13-32.

50) R. Rendtorff, 『구약정경신학』, 112. 이러한 안식년의 의미는 이 법이 일곱째 달을 소와 나귀와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도록' 하는 안식일 법(23:12)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신 15:1

1절 매 칠년의 끝에 너는 면제(מִטְּוֹת)를 행하라.

여기에서 '면제'라고 번역된 <세미타> (מִטְּוֹת)라는 낱말은 '땅을 휴경하다'의 의미(출 23:11)를 가진 <사마트>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매 칠년마다 땅을 휴경하듯이 면제년을 지키라는 규정이다. 면제년에 행해야 할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빛 탕감(2-11절)과 노예 해방(12-18절)이다. 여기에서도 '안식년'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매 칠년마다 지켜야 할 규정이라는 점에서 안식년 법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안식년은 레위기 25장에 등장한다. 여기에는 '안식년'이라는 전문용어도 등장한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휴경에 관한 안식년 제도가 설명된다.

레 25:1-7

1절 그때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갔을 때⁵¹⁾ 그 땅은 야훼를 위한 안식(מִטְּוֹת)을 지킬 것이다.⁵²⁾

3절 너는 육년 동안 네 밭에 씨를 뿌리고, 육년 동안 너는 네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 일곱째 해에는 땅을 위한 쉬의 안식(יְיָ מִטְּוֹת מִבְּטָח), 곧 야훼를 위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아야 한다.

5절 네 수확 중에서 저절로 자란 것은 네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네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들도 거두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땅을 위한 안식의 해(שְׁמֵטַת מִטְּוֹת)가 되어야 한다.

6절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니, 즉 너와 네 남종과

51) ‘그 땅에 들어갔을 때’라는 표현은 레위기에서 3회(19:23; 23:10; 25:2),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1회(출 12:25) 등장한다.

52) <익톨> (미완료형)은 ‘당위의 서법’으로서 지시나 금지, 보편법이나 정언적 명령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J-M §113m).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네 타국인(גֵּרִים וְתוֹשְׁבֵי אֶרֶץ)과
7절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그것의 모든 소출은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레위기 25장 1-7절의 안식년 법은 출애굽기 23장 10-11절에서처럼 매 칠년마다 휴경을 통해 땅을 위한 쉼을 제공하고, 땅의 쉼을 통해 얻어진 소출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위한 먹을거리가 된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로 한정되지 않고,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에 등장하는 대상들이 모두 열거되고 있으며, 동물들도 그 땅에 있는 짐승과 가축이 모두 망라되고 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함께 땅의 쉼을 통한 유익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레위기 25장은 회년법을 보여준다. 안식일에 기초한 칠칠절의 계산법(23:15-16)을 따라 회년은 안식년의 일곱을 채운 해로 규정된다. 8-9절에는 일곱 안식년 후의 안식년으로서 회년의 계산법이 나타나고, 10-13절에서는 자유와 해방의 안식년으로서 회년의 의미가 소개된다.⁵³⁾ ‘49년째’ 혹은 ‘50년째’ 되는 해인 회년은 모든 거민들을 위한 ‘자유’(גִּירָה)를 공포하는 기쁨의 해로서 각자가 자신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지는 단락(14-17절)에서는 회년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행위들이 소개되고, 다음에는(18-22절) 회년을 준수할 때 주어지는 안전한 삶에 대한 약속이 서술된다. 다음 단락에서는 분배받은 땅인 ‘기업’ 무르기에 대한 규정이 소개된다. 기업 무르기는 회년을 기준으로 수행되는 제도이다. 우선 23절에서 기업 무르기의 정당성과 이유가 소개된다.

레 25:23

23절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땅은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이요 타국인들(גֵּרִים וְתוֹשְׁבֵי אֶרֶץ)이기 때문이다.

53)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는 회년 계산법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동시에 존재한다. 일곱 번째 안식년이라는 의미로 보면 49년째가 회년이요(레 25:8-9), 50년째라는 표현(레 25:10-11)을 따르면 50년째 해가 회년이다. 김선종, “레위기 25장의 형성: 안식년과 회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장신논단』 40 (2011), 109.

땅의 소유권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분배받은 모든 땅에서 기업 무르기(**קָטַף**)가 가능하게 된다(24절). 그 이후에는 기업 무르기의 여러 경우들이 설명되는데, 먼저 기업 무를 자로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경우(25절)와 스스로 기업 무를 능력이 있는 자의 경우(26-27절)가 소개된다. 기업 무를 능력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은 회년에 자신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28절). 성벽이 있는 성읍의 가옥은 일 년이 무르기 권리의 기간으로 명시되고 있으며(29절), 일 년 후에는 영원히 그 소유권이 구입한 자에게 있게 된다(30절). 마지막으로 땅과 같이 취급되는 가옥들이 소개된다. 먼저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들은 땅과 같이 취급되어 회년에 원소유주에게 돌아가며(31절),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가옥과 들판의 경우에는 레위인들에게 영원한 무르기 권리(**עֹלָם עֲלֵיכֶם**)가 있음이 명시된다(33-34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식일 법은 다양한 차원에서 확대되고 발전된다. 특별히 안식일 법은 안식년 법의 기초 원리가 되고, 안식년 법은 회년법의 토대가 된다.⁵⁴⁾ 다시 말하면 안식일 법이 안식년 법으로 확장되고, 회년법으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과 발전에서 확인되는 안식일 법의 기본원리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다. 매 칠년마다 맞게 되는 안식년은 ‘휴경’을 통해서 땅이 안식을 얻고 회복되며, 그때의 소출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먹을거리를 얻는다. 또한 안식년은 빚 탕감과 노예해방을 통해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다. 이러한 안식년법의 완성은 회년에서 확인된다. 회년에는 분배받은 땅인 모든 기업이 본래의 땅 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 회년에는 모든 거민들을 위한 ‘자유’(**יְרוּרָה**)가 선포되어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소유에 있어서 처음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⁵⁵⁾ 이러한 처음 상태의 ‘회복’은 모두에게

54) 하지만 안식년 법과 회년 법 사이에는 불연속성도 존재한다. ‘거류민’에 대한 태도에서 보편주의가 나타나는 안식년 법(25:6)과 이스라엘 중심의 특수주의가 발현된 회년 법(레 25:47) 사이의 불연속성을 고찰할 수 있다. 김선종은 이러한 불연속성이 이질적인 기원을 가진 두 율법이 7년 주기법으로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년 법이 안식년 법의 확장 및 발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선종, “레위기 25장의 형성: 안식년과 회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95-117.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안식일 법은 모든 절기 규정이나 안식년과 회년법을 위한 기본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7일 단위의 안식일 제도가 7년 단위의 제도들로 확대되고 전용되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모든 절기나 법들의 준수는 안식일 준수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⁵⁶⁾ 안식일이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규정이나 법들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안식일 준수는 모든 법 준수와 시행의 시금석이 된다.

2.4.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안식일은 다양한 본문에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언급된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의 의미는 우선 출애굽기 31장 12-17절에서 확인된다.

출 31:12-17

- 12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 13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참으로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מִטָּה)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

55) 구약성경에 기록된 안식년 법이나 회년 법이 이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의 실제성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된다. 그러나 그러한 법들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 기만행위가 되어 버린 시드기야의 조치(렘 34:1-22)나 왕이 신하에게 토지를 하사할 경우에 대한 규정(겔 46:17), 그리고 포로귀환자들을 위한 느헤미야의 조치(느 5:1-13; 10:31)는 안식년과 회년법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또한 ‘자유와 해방의 해’를 선포하는 야훼 종의 말(사 61:1-2)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선언(눅 4:18-19)은 회년의 정신과 의미를 일깨우는 본문들이다.

56) 김근주, “안식, 그 거룩한 부르심,” 30.

다. 참으로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영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15절 옛새 동안은 일할 수 있으나 일곱째 날에는 쉬의 안식(יְמֵנוּ מַבֵּט)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야훼를 위한 거룩함이 될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1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영원한 언약(בְּרִית עוֹלָם)으로서 안식일을 행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17절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을 위한 표징(אוֹת)이다. 왜냐하면 옛새 동안 야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מָנוּחַ) 숨을 돌리셨기(שָׁנַן) 때문이다.”

여기에서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을 위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지칭된다(13절, 16-17절).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사건뿐만 아니라 노아 언약에 대한 표징(창 9장)을 떠오르게 한다. 창세기 17장의 할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어야 한다.⁵⁷⁾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언약의 의미를 보여준다.⁵⁸⁾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은 에스겔 본문에도 나타난다.

겔 20:12

그리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나의 안식일들을 주었다. 이로써 그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אוֹת)이 되게 하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겔 20:20

그리고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것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

57) R. Rendtorff, 『구약정경신학』, 60. 이러한 의미에서 할례와 안식일 준수가 유대교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조건이 된다는 사실은 표징으로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R. Goldenberg, “Sabbath II,” *TRE* 29, 521.

58) G. F. Hasel, “Sabbath,” 852. 그것은 창조와 구원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요, 대대로 이어질 약속을 보증하고 소망하는 미래적인 것이며, 모든 안식일 준수를 통해 경험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갱신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는 현재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

(nix)이 될 것이다. 이는 너희로 내가 너희 하나님 야훼임을 알게 하려 함이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이 자신들의 표징인 안식일을 더럽혀 야훼의 분노를 촉발시켰다고 말한다(13절, 21절, 24절). 이 안식일의 더럽힘은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될 율례를 준행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에스겔 22장에서는 안식일의 더럽힘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죄목과 함께 열거된다(7-8절).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된 국가의 멸망이라는 심판을 초래한다. 따라서 안식일의 더럽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토라 준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된다.⁵⁹⁾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중요한 범죄가 된다.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되는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44:24), 군주가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을 갖추는 것(겔 45:17)이 회복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의 확인이며, 자기의 존재 증명인 것이다.⁶⁰⁾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반영하는 제3이사야의 예언에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방인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된다(사 56:1-7).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기쁨을 얻고 높은 곳을 밟으며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배부름을 얻게 하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사 58:13-14). 궁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새 창조의 맥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징이 된다(사 66:23):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59) 박경철은 안식일과 관련한 ‘더럽혀짐’과 ‘거룩’이라는 개념 연구를 통해 안식일 준수가 제의적 의미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박경철, “안식일의 제의적 의미와 사회정의,” 『구약논단』 17 (2005), 56-77.

60) 헤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A. J. Heschel, 『안식』, 37)고 말하고 있고, 초기 시온주의자였던 아하드 하암(Ahad Ha'am)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R. Goldenberg, “Sabbath II,” *TRE* 29, 525).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할 것이다.” 이처럼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의 의미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⁶¹⁾

3. 안식일 법의 현대적 적용

위의 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안식일 법의 현대적 적용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안식일 법의 실천은 노동과 안식의 리듬 찾기의 의미가 있다. 주 5일제 근무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의 한 주간은 구약성경에서 보여주는 6+1일 주기의 안식일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노동과 안식의 리듬으로서 안식일 준수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6일 노동 후 하루를 쉬든, 5일 근무하고 이틀을 쉬든, 노동과 안식의 리듬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각자가 ‘피로사회’로부터 안식을 누려야 함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노동과 안식의 리듬으로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숨 돌리심’으로 창조 질서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요(출 31:17; 창 2:2; 출 20:11),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행동을 따라 그러한 구원이 필요한 대상과 사람들이 ‘너처럼’ 안식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행동이다(신 5:14-15).⁶²⁾ 안식일 준수는 특별히 두 가지

61) A. Schuele, “Who is the True Israel? Community, Identity, and Religious Commitment in Third Isaiah (Isaiah 56-66),” *Interpretation* 73:2 (2019), 179; L.-S. Tiemeyer, “Death or Conversion: The Gentile in the Concluding Chapters of the Book of Isaiah and the Book of the Twelve,”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8 (2017), 19-20.

62)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2018. 2. 28.)한 것은 한국사회가 노동과 안식의 리듬을 존중하는 선진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효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미치게 하여 노동과

관본의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출 20:8-11; 신 5:12-15)의 동기로 묘사하는
 쉽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행동에 일치한다.

다음으로 안식일 법의 실천은 회복을 통한 새 출발의 의미가 있다. 안식일은 다른 말로 하면 소비나 생산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회복에는 활동력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도 포함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사회경제적 인간관계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안식일 법은 안식일 준수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기의 기본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참조, 레 23장).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절기들(유월절/무교절, 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다. 이뿐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확대되어 적용된 안식년 법이나 희년 법에도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식년 법에는 휴경에 관한 규정(출 23:10-11; 레 25:3-7)을 통해 땅의 안식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멈춤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⁶³⁾ 또한 신명기의 안식년 법(신 15:1-18)에는 빗 탕감과 노예 해방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것은 경제적·사회적 속박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 그리고 원상회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안식년 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희년 법은 토지까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여 모든 일그러진 관계를 청산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게 한다(레 25:10, 13, 28). 이처럼 모든 절기와 안식년/희년 법의 기초 원리가 되는 안식일 법은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활동력과 관계 측면에서 채움과 회복을 이루는 것이요, 채움과 회복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법의 실천은 정체성 확인의 의미가 있다. 시간표는

안식의 리듬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이다.

63)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그 땅에 허락하신 안식년의 기간으로 해석한다. “그 땅이 자신의 안식들을 누림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야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칠십년이 차기까지 황무함의 모든 날 동안 그것은 안식하였다”(대하 36:21).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현대인들은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키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무슬림은 금요일을 안식일로, 유대인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기독교인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러나 안식일의 요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 준수의 내용일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안식일 준수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제시된다(사 56:1-7). 그가 이방인이냐 고자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식일 준수는 인종적 배경과 신체적 결합의 조건을 초월하게 한다. 그러나 이때 '악을 행하지 않는 것'(2절),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4절), 그리고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는 것'(6절)이 함께 열거된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제시하는 에스겔서에서도 확인되듯이(겔 20:13, 21, 24; 22:7-8),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토라의 준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안식일 준수는 요일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행동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의미로 요약되는 안식일 법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행동에 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숨을 돌리시고', 이집트 종살이의 땅에서 이끌어 내어 자신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행동에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의 모범을 따라 자신도 '쉬고', 다른 대상들(자유가 없는 사람들, 동물들, 심지어 땅까지)도 '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쉬'를 경험하는 안식일(그리고 안식년, 희년)을 통해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이루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가진 안식일 법의 실천은 그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닮아가기'(imitatio dei)의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⁶⁴⁾

64) '하나님 닮아가기'로서의 구약 윤리에 관하여 필자의 줄고를 참조하라. 하경택, "'하나님 닮아가기'(Imitatio Dei)로서의 정의 - 시편을 통해서 본 구약성서의 '정의' 신학," 『장신논단』 48:2 (2016), 37-66.

나가는 말

안식일 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위한 법이었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를 위해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법으로 평가된다. 십계명으로 명시된 안식일 법의 실천은 ‘기억’과 ‘실행’으로 요구된다. 안식일에 대한 기억과 실행을 통해 경험되는 ‘안식’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될 종말론적 안식을 미리 맛보는 의미까지 포함한다.⁶⁵⁾ 참된 안식이 필요한 시대에 안식일 법에 대한 기억과 실행을 통해 구약성경에서 보여주는 안식의 의미가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안식일, 숨 돌리기, 해방과 자유, 회복, 정체성, 하나님 닮아가기

<Key Words>

Sabbath, taking a breath, liberation and freedom, recovery, identity, *imitatio Dei*

* 접수일 2020년 7월 31일, 수정일 2020년 8월 15일, 게재 확정일 2020년 9월 30일

65) 구약성경에 나타난 안식의 의미를 동사 <누아흐>와 명사 <메누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동으로부터 쉬’, ‘악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원수와 전쟁으로부터 벗어난 평화와 안정’, ‘마음의 평안’ 등의 네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참조, 하경택, “구약성서에 나타난 안식의 의미,” 『성경과 목회』 5 [2010], 77-84). 히브리서는 ‘악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서의 안식의 의미를 살려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구원을 설명한다(히 3:7-4:11).

참고문헌

- 강사문, “구약에 나타난 칠일단위의 문학구조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5 (1989), 9-19.
- 김근주, “안식, 그 거룩한 부르심,” 김근주 외 공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서울: 대장간, 2015, 13-32.
- 김선중, “레위기 25장의 형성: 안식년과 희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장신논단』 40 (2011), 95-117.
- 김선중, “면제년의 땅(신 15:1-11),” 『장신논단』 44:1 (2012), 13-32.
- 김은배, 백근철, “윌터 브루그만의 저항적 안식일론에 관한 고찰과 평가,” 『신학논단』 88 (2017), 33-54.
- 문상기, “주5일 근무제와 쉼과 안식의 신학,” 『복음과 실천』 34 (2004), 205-229.
- 박정철, “안식일의 제의적 의미와 사회정의,” 『구약논단』 17 (2005), 56-77.
- 박희석, 『안식일과 주일: 성경신학적 이해와 그 적용』,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이궁재, “고대 이스라엘 역사 흐름 속 ‘안식일’(=Sabbath) 개념 변화에 대한 신학적 고찰: ‘Sabbath’ - 망월, 축제일, 휴일 그리고 안식일,” 『구약논단』 24 (2018), 293-326.
- 최성수, “한병철의 피로사회 이론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고찰과 대응방안 모색으로서 안식일 개념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5 (2013), 195-222.
- 하경택, “구약성서에 나타난 안식의 의미,” 『성경과 목회』 5 (2010), 77-84.
- 하경택, “‘하나님 닮아가기’(Imitatio Dei)로서의 정의 - 시편을 통해서 본 구약성서의 ‘정의’ 신학,” 『장신논단』 48:2 (2016), 37-66.
- 하경택, “하늘의 양식, 만나의 기적: 출 16:1-26에 대한 주석적 연구,” 『서울장신논단』 17 (2009), 7-43.
-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 Bass, D. C., *Receiving the Day, Christian Practices for Opening the Gift of Time*, San Francisco: Jossey-Bass A Wiley Imprint, 2000.
- Beckwith, R. T., *Calendar and Chronology, Jewish and Christian: Biblical*,

- Intertestamental and Patristic Studies*, Leiden/New York/Köln: E. J. Brill, 1996.
- Biddle, M. E., *Deuteronomy*, Smyth & Hewys Bible Commentary, Macon, GA: Smyth & Hewys Publishing, 2003.
- Blenkinsopp, J., "The Structure of P," *CBQ* 38 (1976), 275-292.
- Brueggemann, W., "Sabbath as Alternative," *Word & World* 36:3 (2016), 247-256.
- Crüsemann, F.,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Chr. Kaiser, 1992.
- Crüsemann, F., 『자유의 보존 -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십계명 이해』, 이지영 옮김, 양평: 크리스천헤럴드, 1999.
- Dawn, Marva J., 『안식』, 전의우 옮김, 서울: IVP, 2001.
- Goldenberg, R., "Sabbath II," *TRE* 29, 521-525.
- Grauspner, A., "Die zehn Gebote im Rahmen alttestamentlicher Ethik," Reventlow, H. G. (Hg.) *Weisheit, Ethos und Gebot. Weisheits- und Dekalogtraditionen in der Bibel und im frühen Judentum*, BThSt 4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1, 61-95.
- Halbe, J., *Das Privilegrecht Jahwes Ex 34, 10-26: Gestalt und Wesen, Herkunft und Wirken in vordeuteronomischer Zei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 Hallo, W. W., "New Moons and Sabbaths: A Case-study in the Contrastive Approach," *Hebrew Union College Annual* 48 (1977), 1-18.
- Hartenstein, F., "Der Sabbat als Zeichen und heilige Zeit. Zur Theologie des Ruhetages im Alten Testament," M. Ebner (Hrgs.), *Das Fest: Jenseits des Alltags*, JBTh 18;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103-131.
- Hasel, G. F., "Sabbath," *ABD* 5, 849-856.
- Heschel, A. J., 『안식』, 김순현 옮김, 서울: 복있는 사람, 2007.
- Hoffman, Y., "The Status of the Decalogue in the Hebrew Bible," Reventlow, H. G. & Hoffman, Y., *The Decalogue in Jewish and*

- Christian Tradition*, New York/London: T&T Clark, 2011, 32-49.
- Jouon, Paul/Muraoka, T., 『(주용-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 Kearney, P. J., "Creation and Liturgy: The P Redaction of Ex 25-40," *ZAW* 89 (1977), 375-387.
- Körtung, C./Spieckermann, H., "Sabbat I," *TRE* 29, 518-521.
- Levenson, J. D., *Sinai and Zion: An Entry into the Jewish Bible*, New York: Winston, 1985.
- Levine, B. A., *Levitic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New York/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Lohfink, N., "Zur Dekalogfassung von Dt 5," *Biblische Zeitschrift* 9 (1965), 17-32.
- Markl, D., *Der Dekalog als Verfassung des Gottesvolkes, Die Brennpunkte einer Rechts hermeneutik des Pentateuch in Exodus 19-24 und Deuteronomium 5*, Freiburg u. a.: Herder, 2007.
- Melammed, E. Z., "'Observe' and 'Remember' Spoken in One Utterance," Segel, B.-Z., *The Ten Commandments in History & Tradition*, Jerusalem: Magnes, 1990, 191-217.
- Miller, Jr, P. D., *The Ten Commandmen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9.
- Muller, W., 『휴(休)』, 박윤정 옮김, 서울: 도솔, 2002.
- Otto, E., "Feste und Feiertage II," *TRE* 11, 96-106.
- Otto, E., *Deuteronomium 4,44-11,32*, HThKAT, Freiburg u.a.: Verlag Herder, 2012.
- Perlitt, L., "Dekalog," *TRE* 8, 408-413.
- Rendtorff, R., 『구약정경신학』, 하경택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 Sarna, N. M.,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New York/Jerusalem, 1991.
- Schmitt, H.-Chr., "Das sogenannte jahwistische Privilegrecht in Ex 34,10-28 als Komposition der spätdeuteronomistischen

Endredakiton des Pentateuch,” Gertz, J. Chr. u.a.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2, 157-171.

Schuele, A., “Sabbath,” *NIDB* 5, 3-10.

Schuele, A., “Who is the True Israel? Community, Identity, and Religious Commitment in Third Isaiah (Isaiah 56-66),” *Interpretation* 73:2 (2019), 174-184.

Smend, R./Luz, U., *Gesetz*, Biblische Konfrontationen, Stuttgart u. a.: Kohlhammer, 1981.

Tiemeyer, L.-S., “Death or Conversion: The Gentile in the Concluding Chapters of the Book of Isaiah and the Book of the Twelve,”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8 (2017), 1-22.

Tigay, J. H.,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Weinfeld, M., *Deuteronomy 1-11*, AB, New York: Doubleday, 1991.

<초록>

구약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법

- '하나님 닮아가기'(imitatio Dei)로서의 안식일 준수-

하경택

(장로회신학대학교)

본 논문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법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안식일 법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것의 현대적 적용을 시도한다. 안식일의 기원에 관하여 고대 중동 풍속에 대한 관련성이 다양하게 논의되지만, 7일 주기의 안식일 기원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구약성경이다.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 법에 관한 다양한 본문들의 진술들을 통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안식일은 노동으로부터 휴식하게 함으로써 '숨 돌리기'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안식일은 출애굽 구원사건에 대한 기억과 실행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한다. 셋째, 안식일은 다양한 절기와 안식년/희년 법의 기본원리로 작용하며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넷째,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실행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는 '노동과 안식의 리듬 찾기'와 '회복을 통한 새 출발' 그리고 '정체성 확인' 등을 통해서 여전히 현대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십계명으로 명시된 안식일 법의 실천은 '기억'과 '실행'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실천은 '숨 돌리기'와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하나님 닮아가기'이기도 하다.

<Abstract>

**The Sabbath Law in the Old Testament:
The Observance of the Sabbath as *imitatio Dei***

Kyung-Taek Ha
(PUTS)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the Sabbath law through a study of the Sabbath laws in the Old Testament and attempts its modern application. Although the relevance of the ancient Middle Eastern customs to the origin of the Sabbath is diversely discussed, the texts of the Old Testament are the surest evidence of the origin of the seven-day cycled Sabbath. The meaning of the Sabbath in the Old Testament is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ly, the Sabbath makes it possible to “take a breath” by resting from work. Secondly, the Sabbath allows us to experience “liberation and freedom” by remembering and complying with the Sabbath. Thirdly, the Sabbath as the basic principle of both various feasts and Sabbath/Jubilee laws signifies “recovery and a new beginning.” Fourthly, the Sabbath as a sign of the covenant provides those who practice the Sabbath with an “identity as God’s people.” The meaning of this Sabbath can be applied within contemporary society by means of “finding the rhythm of labor and rest,” “beginning anew through recovery,” and “confirming one’s identity.” The practice of Sabbath laws, specified in the Ten Commandments, requires “remembrance” and “compliance.” This practice is also *imitatio Dei*, which is following God’s actions of taking a breath and gaining liberation and freedom.